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속 들뢰즈-과타리의 개념의 영향과 전개

- 기계, 리좀, 생태를 중심으로 -

박소영*,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 들어가며

질 들뢰즈와 펠릭스 과타리의 철학은 실험하고 창조하는 철학으로서 조경, 건축, 도시설계 등 도시 공간에 대한 사고와 실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경 분야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과 생태적 어바니즘(ecological urbanism) 담론을 중심으로 들뢰즈와 과타리의 개념을 적극 참조해 공간적 실천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조경 이론과 비평에서 들뢰즈와 과타리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시도는 찾기 어렵다. 들뢰즈와 과타리의 개념은 조경 담론에서 어떻게 독해되어 왔는가? 이들의 철학은 공간 실천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며 들뢰즈와 과타리를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조경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경이라는 미적 실천이 철학적 사유를 공간에서 번역하는 방식을 고찰할 것이다.

조경에서 들뢰즈와 과타리의 이론은 기계, 리좀, 생태 개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기계로서 경관, 리좀적 다이어그램, 생태적 어바니즘. 이 중 기계로서 경관과 리좀적 다이어그램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조경 분야를 지배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대두한다. 이어 2010년 전후 나타난 생태적 어바니즘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연장이자 극복으로서 과타리의 생태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생태적 어바니즘은 각각 1990년대와 2000년대의 탈산업화로 인한 도시 조건의 변화, 2010년대 기후 위기라는 시대의 긴급한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이렇듯 들뢰즈와 과타리의 이론과 개념은 도시에 관한 새로운 사고와 실천 모델을 고안하는 데 적극적으로 쓰인다.

2. 기계로서 경관

경관이라는 매체를 통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경관을 '기계적인 것(the machinic)'으로 규정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기계적 경관을 위한 매뉴얼』은 제목에서부터 '기계적(machinic)' 경관을 선언한다(Mostafavi et al., 2003). 이후 이안 톰슨이 정리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10가지 교의 중 하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경관을 기계적인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다(Thompson, 2012).

그렇다면 기계로서 경관이란 무엇인가? 왜 경관은 '기계'여야 하는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기계는 일상적 또는 사전적 의미의 기계적(mechanical)인 것, 즉 자동화되고 반복적인 것이 아니다. 나아가 모든 현상이 자연 법칙에 의해 기계적으로(mechanically) 작동된다는 기계론적(mechanistic) 철학을 부정한다. 대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들뢰즈-과타리의 이론에 토대한 '생성하는 것'으로서 기계와 경관 개념을 제시한다(Mostafavi et al., 2003).

『천개의 고원』에서 들뢰즈와 과타리는 "우리가 '기계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이질적인 것들의 종합 그 자체이다"라고 규정했다(Deleuze & Guattari, 2003). 들뢰즈-과타리 철학에서 기계에 동반하는 개념인 배치(agencement)에서 알 수 있듯, 기계 개념은 연결, 결합, 조립에 초점을 둔다. 기계는 전통적인 기계와 유기체를 막론하고 결합하는 이질적인 모든 것에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다. "모든 기계에 흩어져 있는 작은 기계들과 모든 유기체에 이산되어 있는 작은 형성체들 사이에 … 상호침투,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Deleuze & Guattari, 1973). 전통적인 기계와 유기체는 결합하고 상호 침투하며 둘 사이의 차이는 사라진다. 기계와 유기체가 얽히는 다양체(multiplicite)의 흐름과 차단하는 과정 속에서 기계는 "욕망하는 기계", 형성하는 기계이다(Deleuze & Guattari, 1973). 결론적으로, "생성은 기계와 같다"(Deleuze & Guattari, 1980).

기계적 경관은 이질적인 것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하는 경관이다. 즉 '생성은 경관과 같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1990년대 후반 탈산업화되어 버려지거나 노후한 도시 부지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대두되었다. 오래된 산업 인프라는 도시를 파편화했고, 부지와 인간은 생태적·문화적으로 단절되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당면한 문제는 이 모든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재)결합이었다. 또한 이 결합은 분야의 장벽을 뛰어넘는 간학제적 협력을 필요로 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는 기계 개념을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모든 용례는 공통적으로 서로 다른 것의 '연결, 결합, 조립'에 대한 실천과 연관된다(Thompson, 2012).

3. 리좀적 설계

들뢰즈-과타리의 생성의 철학은 조경설계의 매체와 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조경설계에서 들뢰즈-과타리의 '리좀(rhizome)' 개념은 다이어그래밍(diagramming)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이 개념에 영향을 받은 건축가와 조경가들이 다이어그램의 보급을 촉진했다(Herrington, 2017). 특히 제임스 코너는 1999년 글 "The Agency of Mapping"에서 들뢰즈-과타리의 '지도 만들기(cartographie)'를 언급하며 맵핑(mapping)을 창의적 설계의 방법으로 제안한다(Corner, 1999a). 이때 리좀은 드리프트(drift), 레이어링(layering), 게임보드(gameboard)와 함께 맵핑의 한 가지 기법으로 제시한다. 그는 이후

2003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Corner, 2003), 실천가로서 자신이 이론화한 창의적인 맵핑 방법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원래 리좀이란 식물의 지하경, 즉 땅속에서 중심뿌리 없이 옆으로 뻗는 구근이나 덩이줄기를 일컫는 말이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리좀에 빗대어 중심이나 계층 없이 수평적으로 생성하는 사유를 강조한다. 사유의 방식으로서 리좀은 "나무와 나무뿌리와 달리 어떤 지점과도 연결"되며 구조나 위계를 만들지 않는다. 리좀은 "시작과 끝도 없지만 항상 자라고 넘쳐나는 사이/환경(milieu)이며, 선적 다양체(multiplicite)를 구성한다"(Deleuze & Guattari, 1980). 들뢰즈와 과타리의 이론에서 리좀과 나무의 개념적 차이는 지도(map)와 추적(tracing)의 차이와 연관된다. '모든 나무의 논리는 추적하기와 재생산의 논리'로서 항상 같은 것을 반복한다. 반면 지도만들기(cartographie)는 리좀적 특성을 가지고 개방적이며 연결 가능하고 '실재와의 실험'이 가능하다.

코너는 맵핑의 하나로서 리좀을 설명하고 있지만, 코너가 말하는 맵핑의 리좀이란 들뢰즈-과타리의 리좀적 사유 방식에 토대한 공간, 도시, 경관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 가깝다. 리좀으로 상징되는 생성의 관점에서 코너는 "뿌리를 내리고 확장하는 활동으로서 맵핑"을 주창했다. 코너는 들뢰즈와 과타리가 '책'에 관해 묻듯 지도, 도시, 경관에 접근한다. 맵핑이란 '책의 의미를 찾기보다 책이 어떤 기능을 하며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떻게 연관·삽입·변형·결합하는지'(Deleuze & Guattari, 1980)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리좀적 맵핑이란 도시, 경관의 고정된 '의미'를 찾거나 '재현'에 목적을 두는 대신 그것의 '행위와 효과'를 우선시한다. 리좀의 방식을 빌려 코너는 맵핑을 다양하고 상호 연결된 가능성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해석의 탐색적 실천으로 확장한다(Corner, 1999a).

1990년대까지 조경 분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조경, 맥하그식 조경 관행과 형태주의적 예술적 조경에 고착되어 있었다. 맥하그식 조경은 지도중첩법을 이용해 물리적·자연적 특성을 과정이 아닌 요소로 환원하여 배치했고, 예술로서 조경은 형태의 재현에 치중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전후해 도시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요구되면서 조경가들은 관례화된 환원적·재현적 방법으로부터 이륙해 과정과 생성의 설계를 시도했다(배정한, 2006). 이때 들뢰즈-과타리의 철학은 생성 중심의 설계 도구를 개발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 선두주자로서 제임스 코너는 이론가에서 조경가로 변신하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전개하며 맵핑의 실험을 계속했다. 코너는 "…폐쇄적인 질서 시스템 속에서 고정된 부품의 구성과 질서만을 고려하는 권위적인 마스터플랜에서 벗어나 … 계획의 환원을 대체하고자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프로세스로서 맵핑"(Corner, 1999a)을 실천했다. 들뢰즈-과타리의 철학에 힘입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는 도시와 경관은 잠재적으로 무한하고 개방된, 보다 넓은 사이/환경(milieu)으로 이해했다. 조경설계는 '디자인 과정에서 생성적일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차원뿐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을 포함'하며, 재현을 넘어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Herrington, 2017). 경관을 재현의 대상이 아닌 '되기의 시학'으로서 상상하게 된 것이다(Corner, 1999b).

4. 생태적 어바니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첫 모음집을 낸 건축가 모흐센 모스타파비(Mostafavi & Najle, 2003)는 이어 2009년 하버드 컨퍼런스를 통해 생태적 어바니즘을 소개한다(Mostafavi & Gareth, eds., 2016). 생태적 어바니즘 담론은 전지구적인 생태 위기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환경 이슈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이자, 분명한 지향점이나 구체성이 부족한 채 전개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비평이기도 하다(Waldheim, 2018). 생태적 어바니즘 이론은 조경가 니나-마리 리스터와 크리스 리드가 엮은 『투영적 생태학(Projective Ecologies)』에서 한층 정교하게 조경에 수용된다. 이때 생태는 조경 실천에서 도구적 수단이 아닌 '모델이자 은유이며 매체'로 등장한다(Reed & Lister, 2014). 요컨대 생태적 어바니즘은 "생태학의 렌즈를 통해 발전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간학제적 접근에서 기존의 혹은 새로운 방법, 도구, 기술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특화되거나 진화된 실천으로 이해해야 한다(Mostafavi, 2016).

사실 생태(ecology)는 생태적 어바니즘이 대두되기 전부터 조경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었다. 1970년대 맥하그는 "훼손된 자연의 치유자"로서 조경의 책무를 선언하고 도구적·과학적 지식으로서 생태학에 기반한 조경 실천을 주도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대두하는 2000년대 전후에 생태는 실체이자 은유로 주목받는다. 1997년, 창조성의 동인(agents)으로서 경관과 함께 생태를 제시한 코너를 필두로 생태는 생성과 과정과 관계 맺는 중요한 은유로 사용된다(Corner, 1997). 한편 다운스뷰 공원(Downsview Park)과 프레쉬킬스(Freshkills) 공모전 등 생태를 위한 전략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실천에 전면에 등장한다.

조경의 어바니즘에서 생태는 익숙한 것이지만 또한 모호한 것이었다. 그러나 생태적 어바니즘은 조경에게 공고한 지향점과 구체성을 제시한다. 생태적 어바니즘에 영향을 준 과타리의 생태철학은 생태를 "새로운 사회 구성의 모델로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철학적 기획"이다(김성하, 2016). 생태적 어바니즘이 채택하는 과타리의 생태 개념은 전통적 생태학뿐 아니라 사회와 주체화의 차원, 즉 사회생태학과 정신생태학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사회적·정치적 차원에서 생태와 경관을 이해하는 사고 방식이 조경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타리의 철학은 도구적 응용과학으로서 단일한 생태학의 틀에서 벗어난다. 과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Guattari, 1989)을 빌리면, a) 환경 중심의 조경 내 생태학 논의는 b) 사회적, 제도적 차원으로 거시적으로 확장되며, c) 가장 개인적이며 미시적인 인간 실존의 차원으로 침투할 수 있다. 조경 실천은 세 가지 생태의 영역을 횡단하여 인간의 외적 조건(사회, 제도)과 내적 조건(주체성)의 재접합을 주재해야 하는 것이다.

5. 나가며

들뢰즈와 과타리의 기계와 리좀 개념, 과타리의 생태철학은 당대 도시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노력하는 현대 조경 실천에서 1990년대 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그로부터 10여 년 후 생태적 어바니즘에서 수용되었으며 풍부한 이론적 자양분을 제공했다. 기계로서 경관은 개발보다는 재생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도시 환경에서 장기적 과정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 실천적 개념으로 등장했다. 재현하지 않으며 생성하는 것으로서 경관은 조경설계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자 그 자체로 '프로세스'로 제시된다. 리좀적 사유는 조경설계의 방법에 활용되어 수평적으로 생성되지만 종결적 형태는 없는 일종의 '열린 결말'로서 도시와 경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과정을 가시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글은 기계, 리좀, 생태를 중심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생태적 어바니즘 속 들뢰즈-과타리의 개념이 적용되는 양상을 추적했다. 이 글은 들뢰즈-과타리의 이론과 조경 이론의 상관 관계를 주로 개념적 층위에서 찾았다. 따라서 들뢰즈와 과타리의 개념이 구체적 공간으로 번역된 양상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실천에 가해지는 비판을 들뢰즈-과타리의 철학과 연결지어 검토해 볼 수는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개념이 적절한 형태로 연결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픽처레스크적 녹색 경치로 형태가 귀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Mehaffy, 2010). 이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빚지고 있는 들뢰즈-과타리의 생성의 철학이 완결되지 않는 과정을 중시하며 물리적 형태의 중요성을 희석시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또 다른 비판점은 경관의 기계적 작동, 리좀적 생성 과정에 천착함에 따라 경관의 현상학적, 감각적, 경험적 차원은 부차적이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Bowring & Swaffield, 2010). 조경이 기계, 리좀 개념에 천착하면서 들뢰즈와 과타리 철학의 미적 차원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사실 들뢰즈-과타리의 철학에서 미적 패러다임, 정동(affect), 되기(devenir)의 개념은 인간의 주체성과 감각에 주목하는 미적 개념이며 기계와 리좀과도 연관된다. 그러나 특정 개념의 선택적 수용에 따라 미적 개념은 공간에 충분히 번역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생태적 어바니즘이 전제하는 과타리의 미적 패러다임은 다시 구체적인 실존의 차원(감각적, 미적 차원)을 강조한다. 이를 조경의 어바니즘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조경은 윤리적-미적 실천으로 위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성하(2016) 과타리의 생태철학에서 주체성 생산의 미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미학예술학연구 47: 253-284.
2. 배정한(2006) 현대 조경설계의 전략적 매체로서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4(2): 99-112.
3. 최진아(2019) '리좀학(Rhizomatique)'의 가능성 - 들뢰즈 철학의 학문적 원리와 확장. 시대와 철학 30(4): 55-87.
4. Bowring, J. and S. Swaffield(2010) Diagrams in Landscape Architecture. In M. Garcia, ed., Diagrams of Architecture. Chichester: Wiley. pp. 141-152.
5. Corner, J.(1997) Ecology and Landscape as Agents of Creativity. In G. Thompson and F. Steiner, eds.,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pp. 80-108.
6. Corner, J.(1999a) The Agency of Mapping: Speculation, Critique and Invention. In D. Cosgrove, ed., Mappings. London: Reaktion. pp. 213-252.
7. Corner, J.(1999b) Eidetic Operations and New Landscapes. In J. Corner, ed., Recovering Landscape: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153-159.
8. Corner, J.(2003) Landscape Urbanism. In M. Mostafavi and C. Najle, eds.,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London: Architectural Association. pp. 58-63.
9. Deleuze, G. and F. Guattari(1973) Anti-Oedipe: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김재인 역,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서울: 민음사. 2014.
10. Deleuze, G. and F. Guattari(1980) Mille Plateaux, v.2 of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Translated by B. Massum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London; New York: Continuum. 2004.
11. Guattari, F.(1989) Les Trois Ecologies. Translated by I. Pindar and P. Sutton, The Three Ecologies. New York: Continuum. 2008.
12. Herrington, S.(2017) Landscape Theory in Design. London; New York: Routledge.
13. Mehaffy, M.(2010) The landscape urbanism: Sprawl in a pretty green dress? planetizen. October 4, https://www.planetizen.com/node/46262
14. Mostafavi, M. and C. Najle, eds.(2003)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London: Architectural Association.
15. Mostafavi, M.(2016) Why Ecological Urbanism? Why Now. In M. Mostafavi and D. Gareth, eds., Ecological Urbanism. Zurich: Lars Muller.
16. Reed, C. and N. Lister, eds.(2014) Projective Ecologies. New York: Actar Publishers.
17. Thompson, I.(2012) Ten tenets and six questions for landscape urbanism. Landscape Research 37(1): 7-26.
18. Waldheim, C.(2018) Landscape as Urbanism: A General Theory. 경관이 만드는 도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과 실천. 배정한, 심지수 역, 서울: 한숲 2018.